A.N.Whitehead 思想의 佛教的 批判

元 義 範

Ⅰ. 序 言
Ⅱ. 本 論
1. 화이트헤드의 過程的 眞理와 記號
2. 科學的 欲望의 記號, 〈=〉
3. 原子命題(Atomic Statement)와 〈=〉
4. 알려는 欲望을 벗어난 앎

Ⅰ. 序 言

歷史上에서 科學과 宗教는 서로 論爭한 때가 많다. 그러나 科學과 宗教가 서로 論爭함은 불행이 아니고 도리어 더 次元이 높은 眞理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이며, 서로 상대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징조이기도 하다. 더욱 더 오묘한 宗教와 더욱 더 세밀한 科學과의 타협에서 그 論爭은 해결되고 또 그렇게 서로 타협될 수 있는 더 넓은 眞理의 調和觀에서 비로소 宗教의 道德的·美的 價値를 파괴하지 않는 宗教의 科學的 世界觀과 科學의 宗教的 世界觀이 高次的으로 並立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高次的인 眞理의 調和觀이 얻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비판적 연구에 의한 확실한 근거가 없이는 어떤 宗教의 理論이든 科學

의 理論이든 그것들을 믿어서는 아니된다고 화이트헤드는 말하였다.[1]

물론 佛敎는 宗敎이고 화이트헤드의 思想은 科學이다. 화이트헤드 자신이 말한 위와 같은 宗敎와 科學과의 사이의 原理的 關係에 근거하면서 佛敎와 화이트헤드의 思想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衝突이 무엇이며, 또 그 衝突을 佛敎的 立場에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확실한 이유가 있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原理的으로 밝혀 보려고 함이 本論에서의 목표이다.

"科學은 두개의 源泉을 가진 江인데 그 하나는 사람이 바라는 무슨 目的이든 그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는 行動을 하려는 欲望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든 그것을 理解하려는 欲望이다. …… 이 두개의 欲望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2]라고 화이트헤드는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科學보다 먼저 欲望이라는 心理的 事實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 欲望이라는 事實이 그이의 科學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佛敎的 立場에서 다음과 같이 批判할 수 있다.

Ⅱ. 本 論

1. 화이트헤드의 過程的 眞理와 記號

화이트헤드 자신이 말하였듯이 欲望이란 自然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만약 欲望이란 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언제나 사람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 언제나 반드시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방안에 있는 하나의 의자가 부서져 없어질 수 있듯이 사람에게 있는 욕망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는 하나의 의자가 부서져 없어질 수 있음만을 발견하고 욕망도 그렇게 없어질 수 있음은 발견하지 못하였을 이치가 없을 것같다. 그러나 그가

1) S. M. Chap. 12.
2) A. E. p. 107.

설사 방안에 있는 하나의 의자가 부서져 없어질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도 그렇게 흩어져 없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손치더라도 욕망도 그렇게 흩어져 부서져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의 의자가 부서져 없어질 수 있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였듯이 강조할 수가 없었을런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만약 욕망도 하나의 의자처럼 그렇게 부서져 흩어져 없어질 수 있다면 그가 말한 바 욕망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한 科學의 江은 그만 말라서 없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데 佛敎에서는 화이트헤드가 科學의 江이 마르지 않기를 욕망하거나 말거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란 것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욕망이 없는 곳에는 科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없어진 곳이야 말로 도리어 科學의 江이 거기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여 결국 거기에로 흘러 들어가는 큰 바다라고 佛敎에서는 인정한다.

코페르니커스나 콜럼부스나 宇宙旅行 이전의 사람들이 地動說을 두려워하고, 太西洋의 水平線 넘어를 두려워하고, 無重力 空間을 두려워하였듯이 佛敎에서 말하는 욕망이 없는 境地를 體驗하여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욕망이 없어진 世界를 想像만하여 보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들은 모두 無知에 근거하고 있다. 天動說을 버리고 地動說을 中心으로 自然科學的·天文學的 體系를 세우고, 또 太西洋의 水平線을 용감하게 모험적으로 넘었을 때에, 또 無重力 空間에서 헤엄쳐 보았을 때에 사람의 사는 세계는 도리어 넓어지고 더 새로운 世界와 새로운 科學의 體系가 이루어졌듯이 사람이 욕망을 버리고 욕망으로 制限당한 욕망의 科學의 限界線을 넘을 때에 사람이 사는 세계는 더욱 더 넓어지고 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科學이 展開될 수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佛陀이다.

화이트헤드는 말하기를 "적어도 自然科學에서 인정하는 事實(facts)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思惟(thoughts)이며, 思惟가 곧 事實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에 의하여 自然科學이 좌우되는 그러한 가장 基本的 材料로서의 感覺的 事實들(實例를 든다면 現在의 瞬間에 눈 앞에 보이고 있

는 빨간색 옷감의 빨간색 느낌 따위)은 적어도 그것들은 일단 思惟된 事實들이며 要素들이다. (다시 말한다면 現在의 瞬間에 실제로 눈앞에 보이며 느껴지는 빨간색 옷감의 빨간색 느낌이나 빨간색 생각같은 그러한 그렇게) 실제로 드러난 思惟(thought expression) 바로 그것이든지, 또는 그러한 第一次的 思惟를 對象으로 삼은 第二次的 思惟들이든지, 그러한 것들이 바로 科學이 說明하려고 하는 이른 바 物質的 材料들이다."라고 하였다.[3] 이렇게 가장 原料的이고, 物質的이고, 材料的이고, 斷片的인 第一次的思惟(disjecta membra)[4]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실질적 槪念 그것이 곧 自然科學이 그 硏究의 對象으로 삼는 物質的 槪念이며 그 槪念이 곧 記號論理學에서의 原子命題<p>, 다시 말하자면 現在에 눈앞에 椅子를 보면서 '이것이 椅子이다.'라는 眞理價를 가진 命題이며, 그 <p>를 原子的 材料로 삼고 화이트헤드의 記號論理學的 自然科學의 世界가 이루어진다.

現在에 눈 앞에 보이는 한 의지를 보면서 '이것이 의자이다.'라고 생각한 그 槪念的 原子命題를 <p>라고 하고 <p>는 眞理價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p>의 眞理價는 絕對的이 아니고 <~p>와의 相對的 關係에서만 다시 말하면 <~p>가 <~p>임이 眞인 경우에 한하여서만 비로소 <p> 도<p>일 수 있다고 하며, 또 다른 <p>도 역시 그러하고, 또 더 나가서 <p>와 <q>와의 사이의 관계도 역시 그러하고, 이리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만큼 그렇게 많은 모든 의자들이 모두 그런 眞理價와 그런 眞理價的 關係들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의자와 같은 그 모든 種的이고 類的인 하나 하나의 原子命題的 槪念들 사이에 서로 서로 그렇게 많은 一次的이고, 算數的이고, 代數的 關係와 또 二次的·三次的·函數的 關係와 또 解釋·幾何學的 關係들이 人間의 生活과 더불어 영원히 날마다 無限加算처럼 점

3) A.E. p. 125.
4) ibid. p. 165.

점 더 複雜多端하게 增大되어만 가는 無限한 進行的·過程的 關係들에 의하여 <p>나 <q>같은 그 모든 하나 하나의 原子命題들도 제각기 제나름대로 그렇게 無限히 進行되는 過程的 眞理價를 지니게 되는 그러한 眞理가 곧 화이트헤드가 주장하는 이른 바 '過程的 眞理' (progressive Real-ity)이며, 그런 眞理를 成立시키는 그런 모든 複雜多端한 過程的 關係性을 學的으로는 <+>,<−>,<×>,<÷>,<=>등으로 表記하고, 記號數論理的으로는 <·>,<∨>,<+>,<⊃>,<≡>,<|> 등으로 表記한다.

2. 科學的 欲望의 記號, <=>

數學的 記號인 <=>은 <+>, <−>, <×>,<÷> 등과는 原理的으로 다른, 말하자면 數學的이 아닌 어떤 原理的 關係性도 갖고 있다. <2+2>,<2−2>,<2×2>, <2÷2>라는 思惟는 다만 '斷片的 事實' (disjecta membera)로서의 數學的 思惟일 뿐이지 槪念的·數學的 問題에 解答을 주는 그런 數學的 計算으로서의 思惟는 아니다. <2+2=4>, <2−2=0>, <2×2=4>, <2÷2=1>이라는 思惟에서 비로소 槪念的·數學的 計算이 可能하여 진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말하기를, <2+2=4>라는 思惟는 <2+2>라는 一次的 思惟를 다시 한번 肯定的으로 反省(reflect)하고 確認(affirm)하는 思惟라고 하였다. (A.E. The Organization of Thought 참조)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2+2=4>라는 思惟는 <2+2>라는 一次的 思惟를 다만 反省하고 確認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一次的·斷片的·數學的 思惟가 아니라 事實은 <2+2>라는 一次的 思惟를 二次的 思惟化하고 槪念化하는 槪念的 命題로서의 <2+2=4>라는 思惟이기도 하다. <2+2>라는 思惟에는 否定的 疑心도 肯定的 確認도 없다. <2+2>라는 思惟는 그야말로 一次的이고 無反省的인 다만 <2+2>라는 斷片的 思惟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2+2=4>라는 思惟에는 否定的 疑心과 肯定的 確認이 둘다 包含되어 있다. <2+2=4>라는 思惟에서의 <2+2>라는 思惟는 다만 <2+2>라는 思惟에

그치지 아니하고 <2+2>는 얼마냐라는 否定的 疑心이 同伴된 思惟이다. 다시 말하자면 <2+2=4>라는 思惟에서의 <2+2>라는 思惟는 <2+2=?>라는 問題의 主題 혹은 主辭로 思惟된 問題로서의 <2+2>이다. 이렇게 問題의 主題 혹은 主辭로 思惟된 問題로서의 <2+2>에 해당되는 肯定的 解答의 述部的 槪念이 곧 <=4>라는 思惟이다. <=4>라는 思惟는 一次的이고 斷片的인 다만 <4>라는 思惟와는 다르다. 一次的이고 斷片的인 다만 <4>라는 思惟는 마치 言語에서의 音聲과 같고, <2+2=?>라는 問題의 解答으로서의 <=4>라는 思惟는 言語에서의 意味와 같다. 言語에서 귀에 들리는 소리는 一次的이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思惟되는 意味는 二次的이고 反省的이고 槪念的인거나 마찬가지로 <=4>라는 思惟는 二次的이고 反省的이고 槪念的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事實을 形式的이고 記號論理的인 側面으로 分析하여 본다면 다만 一次的이고 斷片的이고 數學感覺的인 <4>를 二次的이고, 反省的이고 槪念的인 <4>에로 飛躍시키는 記號는 <=>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2+2=4>에서의 <2+2>를 다만 一次的이고 斷片的인 <2+2>가 아니라 二次的이고 反省的 問題로서의 <2+2=4>에서의 <2+2>에로 飛躍시키는 記號도 역시 <=>이다. 이러므로 한말로 한다면, <=>이라는 記號는 心理的 事實의 側面으로서는 否定的 疑心에서 肯定的 確信에로 飛躍하는 記號이고, 認識論理的으로는 感覺的이고 直感的 認識에서 反省的이고 槪念的 認識에로 飛躍하는 記號이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은 알려는 欲望과 그 充足을 同時에 二重的으로 뜻하는 記號이다. 이러므로 數學的 問題에 解答을 주는 計算에는 반드시 <=>이라는 記號가 使用되어야 한다. <=>이 없이는 數學的 計算이나 統計가 있을 수 없고 數學的 計算이나 統計가 없이는 이른 바 自然科學도 自然科學일 수는 없다. 이러므로 自然科學的 問題를 數學的으로 命題變項하여 數學的 計算에 의하여 解決하려고 하는 화이드헤드의 數學的 自然科學에서의 가장 基本的이고 源泉的인 始發點이 알려는 欲望(desire to un-

derstand)이라고 그 자신이 말한 것은(A.E. The Organization of Thought 참조) 數學的 問題를 푸는 데에는 <=>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 밖에 다른 말이 아니며, 따라서 <=>이 없이는 數學的 問題의 解決이 있을 수 없듯이 그의 數學的 記號論理學에 근거한 哲學이나 自然科學도 알려는 欲望이 없이는 成立되지 아니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앞서 화이트헤드의 科學의 江도 알려는 欲望이 부서질 때 말라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한 말은 여기에 근거한 말이다.

한편 <=>을 計算에 넣는 한 다시 말하자면 數學的으로 알려는 欲望이 있는 한 數學的 計算도 無限히 계속되며 數學的 科學의 江도 無限히 흐른다. 이러므로 화이트헤드의 數學的 科學의 世界에서는 過程(progress)은 있어도 完成은 없으며, 實相(reality)은 過程的 實相(progressive reality)일 뿐이라고 한다. 數學的으로 한 말로 한다면 화이트헤드의 過程的 實相의 哲學이나 科學의 體系는 無限히 계속되는 恒等式의 體系이다. <2+2=4>의 경우를 實例로 들어서 말한다면, <2+2=$x-(x-4)$>라는 恒等式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때에 x는 무한하게 있을 수 있는 모든 數이며, 그 모든 하나 하나의 數를 x에 대입시켜 보면서 무한히 계산하는 그 무한한 計算過程이 곧 화이트헤드의 數學的 科學이나 記號論理學的 哲學의 體系이며, 그런 科學이나 哲學에서 발견되는 어떤 새로운 知識에 어떤 새로운 意味가 있다면 그것은 다만 <2+2=4>일 수도 있고, <2+2=1+3>일 수도 있다는 다만 그런 意味 이외의 아무 다른 意味가 있을 수는 없다.

3. 原子命題(Atomic Statement)와 <=>

화이트헤드의 記號論理學에서 論理的 關係의 記號인 <·>, <∨>, <+>, <~>, <⊃>, <≡>, <|>들 가운데에는 肯定의 記號가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이상스러운 일이다. 肯定이 없이는 어떠한 判斷도 成立될 수 없음은 論理學의 가장 基本原理의 하나인 同一律에 근거한 論

理的 事實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헤드의 記號論理學의 記號들 가운데에 肯定의 記號가 없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의 記號論理學이 成立되는데 그것이 成立되는 까닭은 그의 記號論理學에서 가장 基本的이고, 同一律的이고, 原子的 要素노릇을 하고 있는 이른 바 原子命題 즉 <p> <q> 따위에 이미 그런 肯定이 內包되어 있는 데에 있다.

현재에 現場에서 눈에 보이고 있는 빨간색 옷감의 빨간색 느낌따위 그런 직접적이면서도 순수한 一次的이고 斷片的인 느낌이 곧 記號論理學에서의 原子命題 즉 <p>나 <q> 따위를 이루는 感覺的 材料인데 그런 느낌은 그것이 아무리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미 적어도 '여기에 빨간색 옷감의 빨간색 느낌이 있다.'라는 存在論的·肯定的느낌에 內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 그렇게 內包되어 있음이 事實이다. 왜냐 하면 꿈에 느끼는 빨간색 옷감의 빨간색 느낌과 깨어서 느끼는 빨간색 옷감의 빨간색 느낌이 느낌으로서는 동일한 빨간색 옷감의 빨간색 느낌이면서도 꿈의 빨간색 느낌은 그것을 꿈의 빨간색 느낌으로 따로 떼어서 自然科學的 赤色硏究의 對象으로 삼지않는 까닭은 말할 필요도 없이 꿈의 빨간색 느낌은 빨간색 느낌이기는 하면서도 깨어서 보는 빨간색 느낌처럼 實在性이 있는 느낌이 못된다는 데에 있는데, 이런 事實로 미루어 보더라도 깨어서 보는 빨간색 느낌에는 이미 無言중에 그 實在性이 肯定되어 있음이 充分이 立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 자신도 말하기를 빨간색 옷감의 빨간색 느낌은 어디까지나 다만 그것만으로서 거기에 있을 뿐이지 그 빨간색 느낌을 넘어선 本體論的 그 무엇, 말하자면 赤色 自體 따위가 있으면서 그것이 빨갛게 나타나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原始的·形而上學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였는데,[5] 화이트헤드는 이 말에서 분명하게 빨간색 느낌의 本體的 存在는 일단 否定하면서도 그 現象論的 實在는 도리어 肯定하였다. 이와 같이 數學에서의 (=)이 뜻하는 그러한 肯定的 確認이 記號論理學에서는 이미 그 原子命題인

5) A.E. p. 125.

<p>따위에 內包되어 있다. <p>에 內包되어 있는 그 肯定的 確認은 數學에서 <=>이 그러하듯이 다만 순수한 論理的 槪念確認, 즉 우리 말에서의 '그렇다' 혹은 '이다(is)'를 뜻할 뿐만이 아니라, '있다(exist)'를 뜻하기도 한다. 즉 <p>에 內包된 그 肯定的 確認이 뜻하는 바는 'p는 p이다'임을 뜻할 뿐만이 아니라, 'p는 있다'라고 實在論的으로 確認하는 뜻이 있기도 하다. <p>에는 이와 같이 數學的 計算에서 必要不可缺한 記號인 <=>과 같은 노릇을 하는 '이다', '있다'를 뜻하는 肯定的·實在論的 確認이 內包되어 있기 때문에 記號論理學에서의 命題計算은 그 原子的 要素인 <p>가 없이는 不可能하다.[6]

<p>에는 이미 그렇게 實在論的 肯定, 다시 말하자면 存在判斷이 이미 첨가되어 있음을 화이트헤드 자신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빨간색 옷감에서의 빨간색 느낌에서) '빨갛다'라는 생각은 결국 (빨간색 옷감의) 빨간색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다. 대개의 경우 그런 직접적·감각적 느낌은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빨간색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은 빨간색이 감각된 한도 안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들과 屬性들의 직접적 理解의 한 부분으로서 同伴되고 있다."라고 하였다.[7] 감각적 느낌 <p>에는 그것이 <~p>일 경우에도 반드시 그러한 根源的 存在判斷이 이미 거기에 첨가되어 있음을 드하르마끼르띠(Dharmakirti)와 드하르못따라(Dharmottara)는 벌써부터 主張하였었다.[8] <p>에 첨가되어 있는 그러한 根源的 存在判斷을 칸트(Immanuel Kant)는 先驗的·時空的 直觀形式으로 간주하였고, 하이덱카(Heidegger)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 근거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들 모두가 그것을 느끼며 인정하고 있는, 무엇이라고 한 말로 規定짓기 힘든 存在槪念이며, 하나의 否定할 수

6) A.E. pp. 106~123 (Chap. 9 The Organization of Thought).
7) ibid. p. 124.
8) B.L. Vol. Ⅱ pp. 45, 46 (§8 Perception is a judgement p. 30, pp. 60~64 (Negation); N.B. pp. 14, 19, 20, 25~26 (Anupalabdhih); B.M. pp. 43~48 <經驗知의 限界>, pp. 161~176. <諸行無常印에서의 同一性과 判斷의 問題>, pp. 46~47 <不在判斷>; W.N. pp. 95, 96, 77, 119~123 <不在因>; E.I. pp. 44, 45 (Anupalabdhih).

없는 事實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런 存在槪念이 곧 'ist'라는 낱말이 갖고 있는 槪念的 內容이라고도 하였다.[9] <p>에 첨가된 그러한 根源的·實在論的·肯定的 確認은 印歐語系에서의 存在動詞 '이다' 혹은 '있다'를 뜻하는 'be'이고, 우리 말에서의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 등에서의 斷定的 確信을 뜻하는 '다'라고 할 수 있다.

原子命題 <p>에 內包된 '다(is)'가 뜻하는 槪念은 數學에서의 <=>의 뜻하는 槪念에 다시 實在論的·肯定的 確認을 겸한 것이다. 따라서 '다(is)'는 <2+2>와 <2+2=?>에서 또 <4>와 <=4>에서 각각 그 <2+2=?>의 <2+2>와 <=4>에서의 <4>가 <2+2>의 <2+2>나 <4>의 <4>와는 달리, 問題로서의 <2+2>의 性格과 解答으로서의 <4>의 性格을 갖게하는 記號가 <=>이듯이 <p>에게 그러한 二重的 性格을 갖게한다. 즉 <p>의 p는 단순한 p가 아니고 'p는 p이다' 또는 'p는 있다'라는 命題에서의 主語 노릇을 하는 p와 述部槪念 노릇을 하는 p와의 二重的 性格을 가진 p이다. 主語로서의 p는 'p는 무엇이냐?'와 'p는 있느냐?'라는 疑心스러운 問題의 主題로서의 p이고, 述部槪念으로서의 p는 問題의 'p는 과연 p이다'와 'p는 과연 있다'라는 確認하는 解答으로서의 p이다. 이러므로 數學的 計算에서 <=>이 問題를 提起하고 거기에 解答을 주는 記號, 즉 알려는 欲望과 그 充足을 뜻하는 記號이었듯이 '다(is)'가 內包된 <p>도 역시 그런 알려는 欲望과 그 充足의 記號이다.

화이트헤드의 思想體系에서의 <=>과 '다(is)'가 內包된 <p>는 數學的 計算의 記號만도 아니고, 論理學的肯定의 記號만도 아니고, 心理學的 欲望과 그 充足의 記號만도 아니다. 그 셋을 모두 겸한 記號인 동시에 存在 바로 그것의 記號이기도 하다. 화이트헤드 자신도 말하기를 그의 數學的·記號論理學的科學에서 心理學的으로 관련된 곤란한 문제들을 分離시켜 버리고 싶으면서도 결국 그렇게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하였

9) S. Z. s. 5.

는데[10] 그가 그렇게 自認한 바로 그 經驗 心理學的인 唯一하고도 致命的인 心理學的 問題의 記號가 바로 <=>과 '다(is)'가 內包된 <p>이다.

4. 알려는 欲望을 벗어난 앎

<=>과 <p>가 致命的인 心理學的 記號라고함은 <=>과 <p>에서 內包된 알려는 欲望과 화이트헤드의 科學과의 사이에는 外延과 內包와의 관계[11]가 있는 데다가 欲望은 人間의 自由意志에 左右되는 任意의 事實이기때문에 欲望은 欲望하면 있고 하지 않으면 없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알려고 欲望하지 않는다면 <=>과 <p>는 필요없어지고 <=>과 <p>가 없이는 화이트헤드식의 科學의 世界는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더 致命的 事實은 알려는 欲望이 없어짐으로써 화이트헤드式의 數學的·槪念的 世界는 없어져도 數學的으로 計算되지도 않고, 記號論理的으로 命題計算되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材料的 世界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 材料的 世界는 알려는 欲望과는 관계가 없는 世界이다. 말하자면 槪念的·數學的 計算의 世界에서는 <10÷3=3.333…>으로 無限히 계속되지만 材料的 世界에서는 옷감 10尺은 3折로 접어서 똑같은 길이의 세 조각으로 나누어 놓을 수 있다. 알려는 欲望에 따라 無限히 계속되는 <10÷3=3.333…>의 世界는 反省的·科學的 知解의 世界이고, 現物材料 10尺을 3折로 접어서 3等分을 끝내어 버리는 世界는 直觀的·宗教的 智解의 世界이다. 直觀的 智慧에 의하여 얻어지는 世界觀은 反省的 知解에 의하여 얻어지는 世界觀과는 異質的으로 다르다. 知解에 의한 世界觀은 一次的으로 느껴진 그대로의 物質的 事物이나 事象들이[12] <=>이나 <p>를 媒介로 하여 觀念論的으로 思惟되는 世界

10) A.E. p.162.
11) W.N. pp.101~113<논리적 이유의 세가지 성질—Anvaya와 Vyatireka>; B.L. Vol. II p.57 Note 3,4; N.B. pp.22~24(liṅgasya Trairūpyam).
12) A.E. p.27 (Object), p.130(Time and Space).

觀이지만, 智慧에 의한 世界觀은 <=>이나 <p>따위를 媒介로 하지않고 一次的으로 느껴진 物質的 事物이나 事象들이 있는 그대로 直觀되는 世界觀이며, 그렇기 때문에 直觀的 世界觀은 世界觀이라고 하기보다는 直觀되는 世界 바로 그것이라고 함이 더 맞는 말이다. 直觀되는 있는 그대로의 現物的 世界와 思惟된 世界觀과의 差異가 異質的이라고 함은 그들은 마치 꿈에 가진 돈과 깨어서 가진 돈이 그렇게 다르듯이 또 생각만한 단맛과 먹어본 단맛이 그렇게 다르듯이 다르기 때문이다.[13] 꿈과 깸 사이에 또 생각과 실천 사이에는 그렇게 異質的 飛躍이 있듯이 知解와 智慧와의 사이에는 그렇게 異質的인 認識論的 飛躍이 있다. 화이트헤드의 思想體系는 知解의 思想體系이요, 佛敎의 思想體系는 莫存知解의 思想體系이다.[14]

思惟에는 飛躍性이 있고 서로 次元이 다른 槪念들 사이에는 思惟의 飛躍이 있음을 화이트헤드 자신도 인정하였다.[15] 실례를 들면 點과 線과 面과 立體와의 사이의 關係를 一律的으로 體系化할 수 있으려면 運動과 軌跡의 槪念을 導入시켜야 하는데 運動이란 것은 결코 點도 線도 面도 立體도 아니다. 運動이란 槪念은 마치 運動이라는 槪念이 導入되지 않고서는 點과 線과 面과 立體들이 그렇게 서로 異質的으로 飛躍的으로 다르듯이 點과 線과 面과 立體와는 그렇게 異質的으로 飛躍的으로 다르다. 種에서 類槪念을 形成할 때에도 역시 그러한 思惟의 飛躍이 있다. 그러한 思惟의 飛躍이 科學的 知解의 世界와 宗敎的 智慧의 世界와의 사이에 있고 그러한 思惟의 飛躍이 화이트헤드의 思想과 佛敎思想과의 사이에 있다.

數學의 <=>과 화이트헤드式 記號論理學의 <p>를 媒介로 한 모든 知解가 實踐的으로 否定되고 中止된 다음에야 비로소 莫存知解한 智慧

13) A.E. p. 110(The concept of a definite chair).

14) B.M. p. 148(佛智의 越超性); A.P. p. 138. L. 6(acintyam hi Subhūte Tathāgatatvam buddhatvam svayaṃbhūtvaṃ Sarvajñatvam) etc.; Dh. 354 (taṇhakkhayo Sabbadukkham jināti).

15) D.P. p. 335(Whitehead).

의 世界가 나타난다. 莫存知解한 智慧의 世界는 知解의 世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世界는 마치 現場에 赤色 옷감의 赤色이 빨갛게 눈에 드러나 보이듯이 그렇게 직접 드러나 보이는 現物的 世界이다. 一次元의 線에서 二次元의 面에로의 飛躍의 媒介를 이루는 運動이라는 理論아닌 實踐이 있듯이 科學的 知解의 世界에서 宗教的 智慧의 世界에로의 飛躍의 媒介를 이루는 實踐이 바로 信仰이라는 것이요, 화이트헤드式 思想體系에서 佛教式 思想體系에로의 飛躍의 媒介를 이루는 實踐이 곧 禮佛·念佛·參禪·眞言 따위이다. 莫存知解의 世界에는 人間이 그 思惟의 範疇로 말미암은 모든 不自由를 벗어나서 좀더 自由스럽게 살 수 있는 보다 넓은 世界이다. 그러한 世界를 發見하기 위하여 思惟에 의한 知解를 일단 포기함은 科學과 宗教와의 사이의 異質的 關係를 一律的으로 體系化하기 위하여서 人間의 思惟가 敢行하는 辨證的·飛躍的 實踐이다.★

參考書 및 略字表

A.E.—A.N. Whitehead: The Aims of Education, 1954, New York.
A.P.—Etd. by P.L. Vaidya: Aṣṭasāhasrikā prajñapāramitā, 1960, Darbhaṅga.
B.L.—F. Th. Stcherbatsky: Buddhist Logic 2Vols. 1930, New York.
B.M.—元義範 : 佛教와 現代思想, 1973, 서울.
Dh.—Etd. by Bhikkhu J. kashyap: Dhammapada(included in Nāland-Devanāgari-pāli-Series) Bihar Government, India, 1957.
D.P.—Etd. by Dagobert D. Runes: The Dictionary of Philosophy, 1957, Bombey, India.
E.I.—B.L. Atreya: The Elements of Indian Logic, 1962, Moradabad.
N.B.—Śrī Dharmakīrti & Dharmottarāchārya: Nyāyabindu & Nyāyabindu Thīkā, 1954, Banaras, India.
S.M.—A.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S.Z.—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Max Niemeyer Velag, 1935.
W.N.—元義範 飜譯 : 佛教認識論理學, 1969, 서울.

☆ 東國大學校 佛教大學 敎授 印度哲學.